

공연문화공간의 복합기능

- 예르바 부에나 센터와 토가무라 공연문화공간의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Multi-Function of The Complex Cultural Center

김선영* / Kim, Sun-Yo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multiple functions of the complex cultural center.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complex cultural center has been growing, as people's desire for cultural activities diversified. In order to effectively accommodate the general public's interests in various cultural activities, the complex cultural center tended to be multi-functional. At the same time,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its functions in terms of how the multi-complex cultural center fits into local environment. Only when both people's demand and local environment are fully integrated into its design, can the multi-complex cultural center accomplish the goal of multiple functions in a true sense.

키워드 : multi-complex cultural center, decentralization, urban environment

1. 서론

1.1. 연구 목적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문화의 전지구화 현상, 문화적 다원성의 상실, 그리고 상업주의와 결합된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전파현상으로 인해 지역 및 국가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현상의 대안책으로 다양한 문화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문화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연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방 자치체의 실행에 따른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맞물려 시, 군 단위 지역에 다수 건립되었다. 이러한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은 문화의 균등발전 및 대중의 문화적 욕구 충족 차원과 자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가 문화능력의 증진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문화공간의 성공적인 활성화는 대중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공연물의 질적 향상, 지역문화 발전, 국가 문화력의 증대 등에 관한 상승효과를 파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연문화공간의 디자인은 획일성을 지양하는 가운데 각 지역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간계획과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도시환경 디자인 분야(도시계획, 건축, 그래픽, 조명, 조경 등)와 디자인 연계분야(문화예술, 미디어, 유통, 산업 등)와의 접목을 통한 연계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어 나타나는 공연문화공간의 확산현상과 다양한 문화형태를 수용하기 위한 공연문화공간의 복합기능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또한 단순한 집객 시설로서의 공연문화공간이 아닌,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간의 밀접한 문화교류, 지역문화의 이해 그리고 문화활동 참여기회 증진 등의 매개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연문화공간의 기능에 대하여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공연문화공간의 시설과 다양한 콘텐츠(contents)의 제공, 기존 문화 시설과의 상호협력 관계, 기존 잉여공간의 재활용 등 공연문화공간을 디자인 계획 시 요구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기존의 건립되어 있는 공연문화공간들은 그 건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공연문화공간에 요구되는 복합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decentralization)을 통한 공연문화공간과 지역문화발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둘째, 예르바 부에나 센터(Yerba Buena Center)의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공연문화공간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조건, 지역의 기존 공간 및 잉여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일본의 토가무라(Togamura) 공연공간의 사례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기존 공간의 재활용을 디자인에 적용시킨 공연문화공간의

* 정회원, 영산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강의전담전임교수

문화 기여도를 점검하고자 한다. 셋째, 공연문화공간의 전반적 디자인 계획 과정과 디자인 관련 제반 사항들, 공연장의 가변성과 열린 공간을 이용한 공연문화공간의 복합기능에 대해 검토하며, 기존 문화공간의 활용과 앞으로 국내 공연문화공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공간 예르바 부에나 센터(Yerba Buena Art Center)-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는 정부의 문화정책과 도시환경계획 과정을 통하여 도시의 재개발지역의 잉여공간을 재활용하여 형성되어진 공연문화공간 시설단지이다. 다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이 공연문화공간의 디자인 계획에 적용되어진 공연문화공간의 사례로 본 논문에서는 보유 시설, 각 공간의 기능, 주변 문화공간들과의 상호관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기여도에 관한 전반적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사례지 일본 토가부라 지역의 토가부라 공연단지 시설은 지역성, 기존 공간의 활용 및 환경 친화성과 공연문화공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공간 계획에 반영한 환경 친화적 공연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는 사례지로 공연문화공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연문화공간의 열린 공간의 다양한 공간활용 가능성과 문화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영국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및 국립극장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

공연문화공간의 이상적 목적은 관객의 확산과 문화체험 기회의 균등화에 있다. 공연문화공간의 성공적인 활성화는 대중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공연물의 질적 향상, 지역문화 발전, 국가 문화력의 증대 등에 관한 상승효과를 파급시킨다.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 개념은 1903년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로망 롤랑(Romain Rolland)의 저서 "Le Theatre du Peuple"에서 규정된 '대중을 위한 극장'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 과정은 국가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유럽의 현존하고 있는 많은 문화관련 행사는 지역 단위의 문화축제가 긴 역사와 함께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공연인들의 자발적 노력, 지역민의 참여, 정부의 문화지원 정책,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차별화를 적용한 프로그램 기획 등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1895년 영화의 출현과 20세기 초 극장공간의 도시집중현상은 공연문화 관객의 현저한 감소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현상의 대안책으로서의 문화공간 지역 확산 과정이 대두되게 되었다. 공연문화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지역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 과정은 지방문화공간 설립과 대중 관객 층의 확산이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오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의 결과를 보이게 된다. 프랑스는 공연문화공간의 도시 집중 현상의 문제점을 최초로 인식한 국가로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 과정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대표적인 예

이다. 공연문화의 관객 확산과 지방 극단의 활성화를 위해 배우이며 연출가인 페르맹 게르미에(Firmin Gemier)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 하에 1920년 11월 11일 트로카데로 오디토리움(Trocadero Auditorium)을 개조한 5,000석의 극장공간인 Theatre National Populaire(T. N. P.)를 개관한다. 그는 또한 공연문화의 국제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26년, 현재 UNESCO 산하 공연예술기관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I. T. I.)의 효시가 되는 The Societe Universelle du Theatre를 1926년 창립한다. 프랑스는 공연문화공간 지역 확산 과정의 주 정책으로 기존의 극장건축을 활용한 무대연출, 대중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 공연 티켓의 가격인하 그리고 패키지(package) 프로그램의 보급을 실행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연문화의 대중 집적효과, 수많은 지방자치 극단의 창설, 정부와 지역 단체의 지원형성의 결과를 낳는다. 그 후 1960년대의 프랑스는 문화부가 정책적으로 각 지역에 걸쳐 20개의 공연문화공간 설계 계획을 추진하며 그 중 7개의 문화공간(Masion de la Culture)이 설립된다. 설립된 공연문화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연을 위한 극장을 주축으로 강연장, 영화극장, 콘서트홀, 도서관, 카페테리아 외에 놀이방, 시낭독과 작은 모임을 위한 소 공간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의 집적은 최근 나타나는 복합문화공간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은 공간적 확산과정에서 문화의 확산화로 이르는 성공적 사례를 보인다.



<그림 1> Olivier Theatre



<그림 2> Cottesloe Theatre



<그림 3> Lyttelton Theatre

미국의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 과정은 몇 가지 특징으로 축약된다. 우선 19세기말부터 본격화되어진 대학의 공연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공연예술 관련 인재의 양성, 1910년대 브로드웨이의 상업성을 지양하는 소극장들의 협력단체 결성, 지방 극단간의 상호교류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1935년에서 1939년까지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지원하의 공연진흥사업(The Federal Theatre Project)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35년부터 1939년까지의 공연진흥사업으로 40개 주의 1,200개 공연단체의 830개의 공연물과 6,000편의 라디오 공연물, 공연관련 교육과정, 연극단체들의 조합이 주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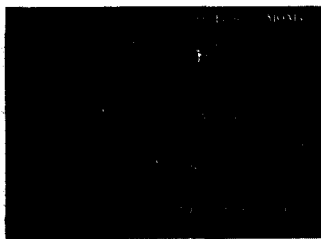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2차 대전 후 형성된 레파토리(repertory) 연극 형식과 런던 교외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신진 소극장들의 네트워크 시스템

템이 세계 대전 이전 런던 시에 집중되었던 문화밀집 현상을 서서히 붕괴시키면서 지역 확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58년 컨벤트리(Conventry)에 위치한 벨그레이드 극장(Belgrade Theatre)을 필두로 1970년대 15개의 극장은 순회공연용 전용극장을 포함한 20개의 공연극장이 건축된다. 이러한 공연문화공간의 증가는 1970년대 이후에도 보여주며 1976년 런던의 South Bank 지역에 3개의 공연 공간인 Olivier Theatre, Lyttelton Theatre, Cottesloe Theatre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국립극장(The Royal National Theatre)과 1982년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Royal Shakespeare Company) 산하의 2개의 공연극장인 바비칸 아트 센터(The Barbican Arts Centre)가 완공된다.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공연문화공간의 확산현상은 19세기초부터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의 현상은 현시적으로는 문화를 수용하는 공간의 증가를 들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대중의 계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상업적 측면과 맞물려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연문화공간의 지역 확산의 성공적 결과와 지역 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단체의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공연문화공간의 확산은 지역의 환경 및 문화체험의 핵심적인 역할을 실행하게 된다. 나아가 대중의 질적, 양적 확대를 의미하며 세계적인 문화 교류 공간으로서의 기능 또한 구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연문화공간의 구성공간, 문화적 기능과 역할, 공연문화공간의 디자인 계획과 도시 환경 정책 및 정부의 문화정책 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3. 공연문화공간의 사례연구

3.1. 예르바 부에나 센터 (Yerba Buena Center)



<그림 4> Aerial View

미국 서부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시에 위치한 예르바 부에나 센터(이후 YBC라 약칭함)는 시각예술 전시, 공연문화 및 지역의 문화정보교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시공간인 아트 갤러리(Art Gallery)와 공연공간인 아트 극장(Art Theater)의 두 개의 독립

된 건물로 형성된 공연문화공간으로, 1993년 개관 이후 시의 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총면적 3.3 에이커에 이르며 지역 예술과 문화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와 공연물을 선보이고 있으며, 많은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적용한 건축물의 디자인

인 컨셉이 특징적이다. YBC가 위치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사우스 마켓(South-Market)지역은 시의 다운타운(downtown)에서 남측으로 벗어난 외곽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1960년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 4천1백만 달러가 투자되어 예르바 부에나 가든(Yerba Buena Garden)이라는 도심 공공 공원(Urban Public Park)으로 재건되었으며 공원의 총면적은 8.8 에이커에 이른다.

로말도 지르골라(Romaldo Giurgola)가 계획한 총면적 5.5 에이커의 녹지대 시민공원 에스플라나드(Esplanade) 광장을 중심으로 YBC 건물을 위주로 한 각기 다른 기능을 갖는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원형의 구획모습을 취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 문화공간 구성 건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참조) 광장의 동방향으로 후미히코 마키(Fumihiko Maki)의 아트 갤러리와 제임스 스투어트 폴셱(James Stewart Polshek)의 아트 극장으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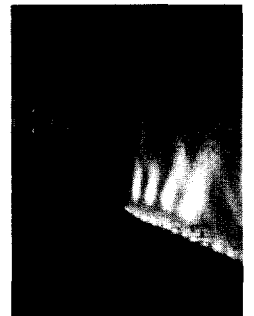
된 YBC가 자리하고 있다.²⁾ YBC 후측으로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이 위치하며 광장의 남동방향으로 1994년 개관한 세계적인 엑스포 개최공간인 모스코니 컨벤션 센터(Moscone Convention Center)의 남북관(총면적 25 에이커)이 미션가(Mission Street)를 중심 축으로 대면하고 있다. 모스코니 컨벤션 센터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건축디자인회사 H. O. K. & Gensler Associates에 의해 완공된 컨벤션 홀로 지하공간의 활용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그 중 남관은 어린이용 놀이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박물관(Children's Museum)과 이웃하고 있다. 광장의 서측에 위치한 소니 엔터테인먼트 센터-메트리온(Sony Entertainment Center-Metreon)은 1999년 신축되었으며 소니 제품 판매장,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판매장, 아이맥스 영화관을 포함한 16개의 영화 상영관 등을 갖춘 첨단 문화공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 문화공간으로는 1920년대에 완공된 윌리스 포크(Willis Polk)의 유대인 박물관(Jewish museum)이 현재 재건축 중이며, 르고레타(Legorreta)의 멕시코 박물관(Mexican museum), 사진작가 안셀 아담스 갤러리(Ansel Adams Gallery) 등의 소규모



<그림 5> SFMOMA Facade



<그림 6> SFMOMA Exterior



<그림 7> Sony Entertainment Screen Theatre

1) Felicia Hardison Londre, *The History of World Theater: From the English Restoration to the Present* (New York: A Frederick Unger Book, 1991), p.384.

2) Jean Schiffman, *The Yerba Buena Question*, *American Theatre*, Vol. 11, No. 7 (September 1994), p.62.

전시장, 기념관, 박물관 등이 집적되어있다. YBC가 위치한 사우스마켓 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다수의 문화공간들의 상호작용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문화교류, 환경 친화적인 도심공원의 제공 등 20세기 후반부터 시의 문화 이정표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공간 단지이다.

3.2. 예르바 부에나 센터 형성 과정 및 위치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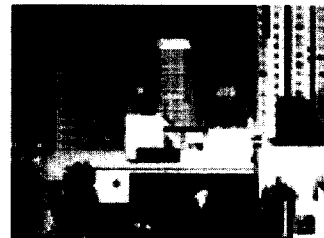
생산공장시설지대이자 시의 문화낙후지역이었던 사우스마켓 지역은 1960년대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재개발프로젝트 지역으로 선정되어진다. 도시계획 사업부(City Planning Department)와는 별도로 San Francisco Redevelopment Agency(SFRDA)³⁾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35여 년간의 사우스마켓 지역문화 재개발사업이 착수되면서 주변의 사무공간빌딩 지역과 대조적인 외관을 형성하게 되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60년대, 토론토의 Zeidler Roberts, 로스앤젤레스의 Jerde & Associates, 필라델피아의 Mitchell Giurgola & Associates, Ceaser Pelli의 공간계획안 및 Kenzo Tange의 사무공간 고층빌딩, 축구경기장과 대형주차공간을 포함하는 계획안 등 수많은 건축가들의 계획안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1980년에 이르러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제반시설들이 신축 및 증축되어지는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자리잡는다. 1993년 YBC의 완공 및 개관과 더불어 지역의 시각예술 및 공연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게 된다. 외국의 공연문화공간의 경우 정부의 지역환경정책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도심근교의 대규모 공장지역과 같은 잉여공간을 재활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YBC는 시의 문화사업과 도시재개발계획이 병행되어 도시의 공공지역을 세계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변모시킨 성공적 사례를 보여준다. 이 지역은 재개발계획 당시 시의 타 지역에 비하여 융통성 있는 신규건축의 규정조건과 예산으로 인해 자유로운 신규건축물의 디자인이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공간건축물은 기존 샌프란시스코의 특징적인 고전적 건축양식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진다. 일본 건축가 후미히코 마키와 제임스 스튜어트 폴렉의 YBC 공연문화공간 건축물은 건물의 기능이 형태에 반영된 디자인으로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추상적인 외관이 특징적이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문화를 대표하는 또하나의 문화공간 집적지대인 San Francisco Civic Center(1906년 개관)를 중심으로 하는 심포니 홀, 오페라 극장 등의 건물과 대비되는 건축요소를 갖추게 된다. Sierra White Stone의 마감재를 사용한 매너리즘과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빅 센터와는 달리 YBC는 미니멀(minimal)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현대적 감각의 파격적인 YBC 건축 디자인은 건물의 외관에서도 표현되듯이 문화의 대중적 접근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⁴⁾

3) John Ellis, San Francisco Civitas: San Francisco Civic Center and Yerba Buena Gardens, San Francisco, California, *Architectural Review*, Vol. 198, No. 1181 (July, 1995), pp.73-79.

광장의 녹지대와 산책로, 광장 동남방향 지대의 상승면을 이용하는 인공폭포가 어우러진 환경디자인 계획은 도시민들에게 자연을 제공하여 준다. 광장 동남방향의 상승 지대는 높이 60.10m(20ft), 길이 15.24m(500ft.) 규모의 상승면으로 광장의 산책로와 연결되어 아트극장 2층의 입구로 이어진다. 상승 지대의 하단부에는 휴스틴 컨윌(Houston Conwill)이 디자인 한 마틴 루터 킹 기념관(Martin Luther King, Jr. Memorial)의 주입구(main entrance)가 인공폭포 밑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틴 루터 킹 기념관의 지하공간에는 모스코니 컨벤션 센터의 북관(Moscone Convention Center-North)⁵⁾이 자리하고 있다.

3.3. 예르바 부에나 센터 건축물의 특징

아트 갤러리와 아트 극장 건물은 형태적 측면에서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두 건물은 금속재, 유리 등의 마감재가 사용되었으며 장식성을 철저히 배제한 듯한 특징을 보인다. 직방형의 기본구조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단순함으로 인하여 건물의 정면과 후면, 출구와 입구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두 건



<그림 8> Exterior View of Art Gallery

물은 슬레이트(slate)로 포장된 보도를 중심 축으로 병렬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 후면에는 건물용 서비스 공간과 하역공간의 입구가 현대 미술관의 정면(facade)과 Third Street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광장에서 바라본 건물의 배치관계를 살펴보면, 마리오 보타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정면 일부가 YBC의 두 건물의 사이로 시야에 들어옴으로 건축물간의 원근감을 형성한다. 현대미술관의 후측으로는 고층빌딩인 Pacific Telephone Tower(1929년 완공)가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의 시각적 원근 효과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아트 갤러리와 아트 극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예르바 부에나 아트 갤러리 - Yerba Buena Art Gallery(건축가: Fumihiko Maki / Robinson, Mills & Williams)

아트 갤러리 건물은 건축가 후미히코 마키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RMW(Robinson, Mills & Williams) 건축디자인회사가 디자인 한 직방형의 전시공간으로 연면적 5,000m²(55,000 sq.ft.)에 이른다. 전체적인 형태의 특징은 과감한 간결성에서 비롯되는 단정하고 기품이 있는 외관으로 사람의 시선을 자극하는 독특한 느낌의 건물이다. 연회색의 알루미늄 패널, 강화유리, 회색의 회벽(grey stucco), 석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메자닌(mezzanine)을 포함하는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4) Ellis, San Francisco Civitas, op. cit. p.77.

5) Ibid.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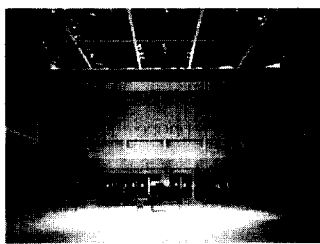
건물의 주 기능은 다양한 지역 문화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한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활동 후원, 시각예술의 전시 및 보급,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예술강연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간 구성으로는 3개의 주 전시실, 다용도 포럼(forum), 영상 상영실, 행정업무용 사무공간, 카페(카페명: OPTS), 기념품 판매공간(gift shop)과 야외 조각 전시장이 있으며 전시 시설, 포럼, 및 영상 상영실은 대여가 가능하다. 주 입구에서 이어지는 중앙 로비 공간은 고천장의 구조로, 광장을 향한 외벽이 이중유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건물 내부의 뛰어난 자연채광 효과와 함께 시각적으로는 광장과 주위의 경관을 건물 내부로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유리외벽의 처리는 야외 광장을 이용한 공연 시 건물의 로비공간이 무대의 연장 혹은 백스테이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다음의 표에서는 각 전시공간의 다양한 크기와 특징적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트 갤러리의 다기능 공간인 포럼 공간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시공간

<표 1> 각 전시실의 크기와 천장높이 비교

전시공간	면적	천고	비고
제 1 전시실	468㎡ (5,200sq. ft.)	7.5m (25ft.)	
제 2 전시실	180㎡ (2,000sq. ft.)	7.5m (25ft.)	루버(louver)가 있는 천장창(skylight)이 설치된 전시공간
제 3 전시실	90㎡ (1,000sq. ft.)	4.2m (14ft.)	하이테크(high-tech)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시공간

② 포럼 (Forum)



<그림 9> Yerba Buena Art Gallery Forum

사용 가능 면적이 603㎡(6,700sq.ft.)에 이르는 직방형의 공간이다. 격자형의 천장마감 구조체를 갖추고 있는 다기능(multi-purpose) 공간으로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블랙 박스(black box)형식의 스튜디오 극장(studio theater) 형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천장의 격자형 배튼(batten)은 공연 조명에 필요한 조명 기기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공간의 3면에 설치된 발코니 난간은 공연조명과 실내조명 부착이 가능하다. 가능 수용 인원은 600명에 이르며 실험극, 실내음악회, 무용공연, 강연 등의 공연과 이벤트 연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무용공연을 대비한 탄성 나무 바닥재의 사용, 벽면을 이용한 불박이식 보관광고 등이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광장을 향한 벽면은 전면유리로 처리되어 자연채광과 경관유입에 용이하다.

③ 부속 시설

건물의 지하에는 영상물 상연 및 강연을 위한 96석의 소규모 영상실이 위치하며 건물의 동측 외부에는 야외 조각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건물의 2층 메자닌 부분에는 OPTS 카페가 있으며 주 입구에서 이어지는 컴퓨터 이용 공간, 주 입구 우측에 위치한 기념품 판매 공간, 행정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2) 예르바 부에나 아트 극장 - Yerba Buena Art Theater⁶⁾ (건축가: James Stewart Polshek)

블랙박스형의 극장 건물로 다양한 형태의 공연연출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연극은 하나의 게임과 같은 유희이며 극장은 그러한 유희를 경험하는 신비로운 블랙박스라 같다'라는 건축가의 컨셉을 반영하는 건축물의 형태는 '건축은 사회적 공헌을 하여야 한다'는 건축가의 신념처럼 지역 공연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은 크기와 높이가 다른 육면체들이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천2백만 달러가 투자되어진 건물로 사용 연면적은 4,212㎡(46,800sq.ft.)에 이른다. 후미히코 마키의 아트 갤러리 건물보다 많은 종류의 마감재가 사용되었으며 특징적인 외벽 마감재로는 흰색, 은회색의 알루미늄 금속 패널(panels), 유리블록, 세라믹 타일, 에나멜 도자 패널(porcelain enamel panels) 등이 사용되었다. 공연장(auditorium) 및 무대의 기능공간인 백스테이지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육면체 건물의 높이는 27m(90ft.)에 이르며 외관상으로 창문이 없는 특징을 보이며 정사각형의 은회색 알루미늄 격자 패널로 건물의 외부가 마감처리되어 있다. 공연장은 장애인용 좌석을 포함한 755개석을 갖추고 있다.



<그림 10> Yerba Buena Art Theater



<그림 11> Exterior View of Art Theater

공연공간의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형의 극장규모로 무대와 관객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극장 규모를 갖추고 있다. 프로시니엄형식의 무대를 갖추고 있으며 무대의 크기를 살펴보면, 무대깊이 13.72m(45ft), 무대폭 28.36m(93ft)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시니엄의 오픈 크기는 가로 13.41m(44ft), 높이 10.06m(33ft)로 전체적인 무대공간은 전형적인 프로시니엄의 외형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예회관 대극장 규모와 흡사하다. 그러나 프로시니엄 아치의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대 조명 배튼 및 공연장 천장의 구조체가 드러나 보이는 내부는 프로시니엄 형식의 극장을 포스트모던 기법으로 시각적 연출이 돋보인다. 무대 앞쪽의 매입형 오케스트라 피트는 30명의 연주인을 수용하며 공연물에 따라 연장무대(apron), 돌출무대(thrust stage) 혹은 3면 무대형식으로의 무대변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무대의 상층부(flys)에는 배경막의 게양, 전환 및 조

6) 1995 9월 28일 예르바 부에나 아트 극장의 이벤트 매니저 Raissa de la Rosa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한 내용임을 밝힌다.

명을 위한 배튼(batten) 설치에 필요한 건물 9층 높이의 플라이 타워(fly tower)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무대 배경 및 장치의 외부제작 시 배경막 등의 이동과 변환이 용이하도록 무대와 무대 뒷공간 사이의 후벽(back wall) 구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대와 건물 후면의 하역공간, 보관창고 공간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영상물 상영이나 공연에 사용되는 영상스크린(screen)막의 설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공연물에 따라 무대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전통 연극에서부터 실험극, 현대 무용, 연주회, 강연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작업 공간, 공연인 대기실(green room), 개인용 분장실(dressing room), 44명의 수용이 가능한 분장실, 의상 보관실 등의 공연인을 위한 기능공간은 무대로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연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건물 디자인임을 보여 준다.



<그림 12> Art Theater Lobby

공공공간을 포함하는 또다른 육면체 건물은 남서향의 길이 10.20m(34ft.)에 이르는 두 외벽이 격자형 유리패널로 처리되어 있어 공연장을 포함하는 육면체와는 대조되는 느낌을 전달한다. 주 입구, 로비, 행정사무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격자형의 창틀과 유리패널로 처리된 외벽에서 보여지는 반복되는 격자형 패턴의 사용은 전체적으로 건물의 시각적 통일감을 준다.

건물 내부의 로비 공간은 밝은 파스텔 톤의 노란색을 사용하였으며 유리 외벽을 통해 로비의 내부 공간이 외부로 확산되는 특징과 함께 시각적으로는 개방된 공간 디자인을 보여 준다. 로비 공간에 위치한 계단은 2층의 사무공간과 야외 광장의 산책로로 이어지며 로비 공간의 중요한 조형적 요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간의 기능성과 공간구조를 건물 형태와 접목시킨 극장 건물로 기능공간과 공공공간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건물디자인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특징은 마감재의 통일성과 패턴의 반복사용으로 인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시각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건물 디자인의 전체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진 모노톤의 마감재와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의 처리로 건물의 양감을 강조하고 있다. 형태에서 오는 단순함을 붉은 색, 밝은 노란 색 등의 악센트 칼라를 사용함으로써 색과 형태의 대비효과 및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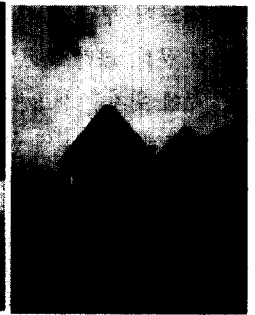
3.4. 토가무라 공연문화공간 (Togamura)

일본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가 지역의 기존 농가를 개조하여 만든 극장공간으로 주변의 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4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의 토가마(Togama)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극예술일본센터(Japanese Centre for the Dramatic Arts)이 주관하는 공연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 토가무라 공연문화공간은 환경 친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역 문화공간이다. 공

간의 건축적 특징은 기존의 지역 공간 및 전통공간을 최소한의 디자인 변형으로 재건축한 지역 공연문화공간이다.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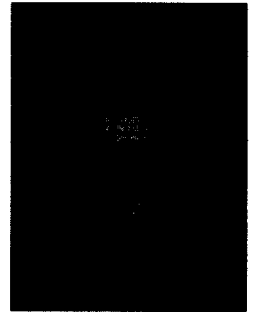


<그림 13> Togamura 전경



<그림 14> Togamura 건물

성 건축물의 특징은 첫째, 건축적 제한 조건을 역으로 최대한 활용한 공간 연출을 시사하고 있다. 두번째로 지역의 환경적, 위치적 특성을 구성 건물 및 야외 공연장에 유입시키고 있다. 구성 건물을 살펴보면 기존 건물의 외관과 기존 재료가 세심하게 배려되어 디자인되어 있는 일련의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초의 전통적 형태의 농가를 개조하여 건축되어진 극장내부는 전통 가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존 구조물의 최소한의 변형을 추구하는 디자인 접근방식으로 보이고 있다. 주 공연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은 중앙에 위치하며 농가를 개조한 건물로 기존의 외관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건물은 박공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진 외관을 취한다. 공연장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무대와 백스테이지의 공간을 미닫이 형태의 쇼지(Shoji) 스크린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



<그림 15> Togamura Stage View 1



<그림 16> Togamura Stage View 2

하고 있다. 공연장 무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기후 조건의 적합한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무대 바닥으로 마루 구조 하부에 석재를 가열시키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공연장을 포함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양측으로는 공연인들을 위한 기숙시설과 그 외의 부속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두 채의 직방형의 건물이 위치한다. 이 건물들은 산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각 건물들은 계단과 교각 형태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각 건물들간의 이동동선은 자연스럽게 호수가 접해있는 야외 원형극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수와 면해 있는 원형극장은 고대 그리스의 원형극장과 흡사한 구조를 보이며 자연 환경과 건축을 융화되어진 형상을 취하고 있다. 산언덕을 활용한 객석지대와 객석의 배경으로 보여지는 자연경관의 활용은 일본 정원의 Shakkei(borrowed landscape)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동서양의 건축적 특성을 조합한 공연문화공간으로 페스티벌 개최 기간 외에는 세계 각국의 극단들이 초청되어 워크숍 및 공연에 이용되고 있는 지역성을 건축 공간에 적용시킨 공연문화공간이다.

3.5. 예르바 부에나 센터와 토가무라의 사례 분석

유럽 문화, 라틴 문화, 동양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시의 YBC는 1990년대 시의 문화공간의 증축과 함께 지역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토가무라 역시 지역문화와 세계적인 공연문화를 개최하는 공연공간으로, YBC와 토가무라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 원인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YBC의 경우 첫째, 지역의 도시 공유지를 재활용 한 공연문화공간의 건축, 기존 문화공간과의 상호보완적 디자인 계획을 들 수 있다. 이는 대중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문화공간형성과 도시재개발사업과 접목시킨 공연문화공간의 디자인 과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 야외광장의 활용성을 들 수 있다. 기능의 분업화와 뚜렷한 개성을 지닌 각 건축물들의 중심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야외광장은 각 건물간의 연계성을 감안한 곡선형의 산책로가 각 건물을 자연스럽게 연결, 화합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민들에게는 자연 친화적인 녹지대의 제공과 야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간이 무대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각 건물의 야외놀이마당으로 이용 가능한 야외광장은 옥외 문화행사의 경우 주변의 건물들이 관객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형무대의 형상을 보여준다. YBC와 소니 엔터테인먼트 센터 광장을 향한 외벽의 유리마감, 산책로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각 건물의 입구 등은 광장의 전형적인 방사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로 인하여 외부의 '놀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건물 내부로 흡수 혹은 배출된다.

세째로, 각 문화공간의 기능의 차별화 정책이다. YBC를 포함한 각 문화공간들은 철저한 기능 분리, 차별화 된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자체적 관객층을 형성하며 특색 있는 건물디자인 계획으로 시각적인 구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에게 중복되지 않는 내용의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 에스플라나드 광장을 축으로 각기 다른 기능의 문화공간들이 자체적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각 공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며 공존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문화의 원-스탑-쇼핑(one-stop shopping)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YBC는 지역의 시각예술문화와 공연문화를 담당하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세계적인 기획전과 강연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모스코니 컨벤션 센터는 맥 월드(Mac World) 엑스포와 같은 첨단 기술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교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니 엔터테인먼트 센터-메트리아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니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업문화시설, 실내 테마 파크, 세계 각 지역의 식문화를 보여주는 레스토랑, 대형 게임룸, 16개의 영화관 등 첨단 디지털 문화와 상업성이 결합된 문화 공간의 제공으로 다양한 문화시설과 첨단문화상품을 접할 수 있다. 어린이 박물관은 야외 놀이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를 담당한다.

토가무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YBC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기존 공간을 재활용하여 건축된 공연공간으로 지역의 자연환경을 건축물과

조화시키고 있다. 또한 특징적으로 호수와 산언덕을 이용한 야외 원형극장은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뿐 아니라 동서양의 극장 건축의 개념을 융화시킨 사례이다. 또한 야외극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위치한 각각의 건물들은 동양건축구조에서 보여지는 실내의 공간의 연계성을 이용한 동선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YBC에서 나타나는 야외광장과 흡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요인들과 도시환경의 특성을 살린 예르바 부에나 센터의 사례와 지역 환경을 디자인에 반영한 토가무라는 공연문화공간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3.6. 열린 공간의 활용 사례

공연장외에 많은 시설을 포함하게 되는 공연문화공간은 공연공간(공연을 위한 공간), 기능공간(작업공간 및 행정사무공간 등), 공공공간(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열린 공간으로는 로비 공간을 들 수 있다. 영국 국립극장의 Lyttelton 극장은 foyer의 에이트리움 공간을 활용한 foyer music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연하고 있다. 열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관객과의 교류 프로그램인 공연관계자, 배우, 연출가,

작가 등과의 토론마당 Terrace Cafe에서 무료로 행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벽면 구조체와 공간을 활용하는 연중 무료 전시회 등이 있다. 영국의 국립극장의 경우는 공연문화공간의 열린 공간의 활용이 대중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접목되어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⁷⁾ 우리나라의 경우 로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공연문화공간의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장을 살펴보



<그림 17> Lyttelton Theatre Foyer1



<그림 18> Lyttelton theatre Foyer2

기로 한다. 우선 예술의 전당은 오페라 하우스(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음악당(콘서트홀, 리사이틀홀), 서예관, 예술자료관, 미술관 등 5개 동으로 구성된 아트센터와 국립국악원(예면당, 우면당, 국악박물관), 한국종합예술학교(KNUA홀) 등 특수기능의 공간들이 집적되어 형성된 문화공간이다.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 오페라극장과 토월극장의 로비공간으로 원형공간의 로툰다(rotunda)가 공간 전체에 풍부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5개 층에 걸쳐 있는 직경 40m의 원형공간 중앙에 직경 15m 높이 37.5m의 원주공간

7)영국의 국립극장(The Royal National Theatre, Olivier Auditorium, 건축가: Denys Lasdun)의 로비에서는 퍼포먼스 형태의 공연이 실제 행하여지고 있다.



<그림 19> 국립극장

을 설정한 에트리움(atrium)형식의 공간은 돔(dome)의 천장창(skylight)을 이용한 자연광의 활용과 판매대 및 보관소 등의 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소규모의 이벤트나 공연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공간적 측면에서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또한 각 층과 지상 및 지하 공간으로 연결되는 위치적 이점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관객을 유인하기에 적합하다. 즉 기존의 퍼블릭 홀로써의 기능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간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국립극장의 경우에도 주입구에서 들어서면 3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중심으로 대형 메자닌(mezzanine) 형태의 로비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1, 2, 3층의 공간을 기획 전이나 다용도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1층 로비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야외 공간은 계단을 이용한 즉석 객석으로 활용되어 소규모 기획 공연에 공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극장 시설 보수, 별관의 활용, 야외 공간을 활용, 각종 전시 기획, 극장 주변 환경의 문화 조성, 대형 주차공간의 확보,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소극장 오페라 연습실을 개조한 카페의 제공, 음향 조형물의 건립 등 무대 시설의 현대화와 공간활용 방안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의 공연계도 건축물과 도시환경 친화적 컨셉의 공연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대형빌딩의 로비공간에서의 현대무용 공연, 서울의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지하철 공연 등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지역 환경과 극장 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공연문화공간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 홍보와 지역의 특징적 문화형태를 보존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세기의 공연문화공간은 관객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문화참여와 관객과 공연인의 상호 교류의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4. 공연문화공간의 디자인 계획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공연문화공간은 건물이 지어질 때 '그 공간이 어떠한 지역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하는 기획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인 경우에는 '이 공간에서 어떤 유형의 공연물을 공연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계획과 설계 하에 건축되어야 한다. 공연문화공간의 경우에는 공연을 위한 극장구조를 포함하게 되며 이 공간은 공연물의 유형-오페라, 발레, 뮤지컬, 일반연극, 마임, 콘서트, 연주회 등-에 따라 필요한 무대의 면적이나 높이가 달라지며 음향전달상의 문제, 무대장치의 전환 등에 따른 무대시설과 장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연공간을 건축하기 위해 계획하고 설계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사용자(the owner/client/user), 건축가, 극장전문가(theatre expert)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건축가에게 극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으로서 연출가, 무대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를 포함시켜야 한다.⁸⁾ 실용성이 있는 공연극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극장설계 과정에서 건축가와 함께 극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공연문화공간의 전반적 특성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극장설계자문위원의 자질로서 공연예술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극장설계에 대한 경험을 갖춘 종합적 예술가(art generalist)가 필요하다.⁹⁾ 다음에서는 공간의 복합 기능과 공연장의 가변성, 열린 공간의 활용 등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4.1. 공간의 복합기능과 시각요소

최근 등장하고 있는 많은 공연문화공간의 기능이 복합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공연문화공간이 과거와는 달리 한가지 기능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의 공연문화공간은 대형 공간 속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원-스탑-쇼핑 개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공연문화공간의 복합 기능적 공간 디자인 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문화의 공간감각 체험과 공연문화체험의 연장을 위한 공간배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객의 공간 이동 패턴의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의 복합적 기능은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장 시설, 지역의 문화정보교환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공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상업시설, 부속시설 및 주차시설과 같은 다양한 공간을 포함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공연문화공간은 공연 공간 외에 많은 부수적 기능의 공간들이 존재하므로 각 공간의 기능과 종류, 대중과의 접촉빈도에 따른 위치관계, 각 공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디자인 계획을 실행한다. 또한 정규 공연프로그램 외에 상연 공연물이나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연계되는 이벤트의 제공장소, 공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공간, 도서관, 공연예술 관련 전시 공간, 공연예술전문서적 및 문화상품 판매공간, 야외공연공간, 식민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식공간 등 각 공간별로 특수성을 적용한 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화 체험 공간의 기능적 확장은 대중의 문화 체험의 욕구를 다각도로 충족시키며 문화의 전시효과를 발생한다. 두 번째로 공간 및 각 시설의 관계를 표명하는 그래픽 요소(graphic element)의 중요성이다. 그래픽 요소들은 건축 구조물, 공간 색채계획과 함께 공간의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그래픽 요소에는 공간간의 이동 편의, 위치관계 및 문화공간의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시각전달 프로그램, 사인 시스템(sign system) 등이 있다. 각 공간의 기능과 전체 공간 이미지와 연관되는 시각적 요소들은 공연문화공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8)Jo Mielziner, *The Shapes of Our Theatre* (New York: Clarkson N. Potter, Inc./Publisher, 1970). pp.67-80

9)Catherine R. Brown, *Building for the Arts* (New Mexico: WESTAF, 1989). pp.117-254

4.2. 공연장의 가변성

시대와 작품의 성격에 따른 무대표현양식의 변화는 극장건축 양식의 변천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배랭거(M. S. Barranger)가 그의 저서 "Theatre: A Way of Seeing"에서 지적하듯, 연극의 변천은 배우와 관객의 만남의 형태, 즉 무대와 객석의 형태가 변천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극장구조의 형태는 관객으로 하여금 지적, 심리적 반응을 달리하며 공연물을 지켜보게 한다. 그러므로 극장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대의 형태에 따라 관객은 공연물에 대한 반응을 달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와 정보 및 관객의 요구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서 관객의 욕구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공연공간은 흔치 않다. 21세기의 공연공간은 고도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공연공간의 융통성이 증대되었으나 많은 종류의 공연 규모, 형식, 객석, 장치 및 무대 설비를 모두 충족시킬 만한 극장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현대의 공연문화는 고정된 공간을 거부하기도 하고, 작품에 맞추어 극장공간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극장공간은 기계적이고 고정적인 물리공간이 아닌 공연작품에 따라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한 유동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즉 현대의 다양한 공연예술의 형태를 소화하기 위한 오디토리움(auditorium)공간은 절대적으로 가변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연장의 가변성은 공연장 기능 및 공연문화공간 자체의 활성화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관념적인 틀에서 벗어난 다채로운 형식의 공연물을 수용하는 공간의 디자인을 현실화하고 있다. 복합기능의 공연문화공간은 기존의 규정되고 획일화된 공연공간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공연장 형태와 기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하나의 문화공간이 가변적 요소가 첨가된 다목적(multi-purpose) 기능의 공간으로 탄생됨을 뜻한다.

4.3. 새로운 형식의 공연공간과 열린 공간의 활용

극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 이후, 많은 극장 공간들은 관객과 배우의 긴밀한 유대감 형성을 위한 공간연출이 진행된다. 환경연극주의자들에 의해 모색되어진 기존환경의 무대화 작업 등 기존의 공간을 이용한 실험적 공연의 시도와 함께 극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 현대의 실험적 무대는 연극과 인간 삶의 관계, 즉 연기공간과 일상공간을 일치시키기도 하는데 극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관객이라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극공연은 극장에서가 아니라 공원, 지하철, 역, 정류장, 병원이나 감옥, 길가 등 어떠한 장소에서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습적인 무대 공간을 탈피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대중을 접하는 공간으로 기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모든 공간은 극적 공간으로서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샐리 하리슨 펄퍼(Sally Harrison-Pepper)는 그의 저서 "Drawing a Circle in the Square"에서 "거리의 성공적 행위자들의 능력은 부분적으로 도시공간을 극장공간(theatre place)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에 의해 평가된다"고 전제하고, 거리의 공연공간이 무대공간의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공원이거나 거리에서 공연자와 관객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가 '집단의 기대적 태도(attitude of collaborative expectancy)'라고 부르는 '인원수에 있어서의 안정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공연을 보고자 하는 관객들은 행위자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고, 관객의 수가 불어날수록 행위자의 연기공간은 그들에 의해 밀폐되어 행위자와 관람자 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공연공간을 열어 놓음으로써 공원이거나 거리를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어 구경꾼을 모으기 위한 과정으로서 '열려진 공간(opened space)'의 원리를 이용한다. 공연장이 모아진 관객으로 하여금 시선과 관심을 공연행위에 집중시키기 위해 공연공간을 한정시킨 '폐쇄된 공간(closed space)'의 원리를 따른 것에 대한 대조적인 의미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열려진 공간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은 공연문화공간 건축물 자체가 연출하는 내부 공간에 적용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실내 공간이 형성하고 있는 열린 공간을 이용한 관객과 공연인들간의 상호교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게 된다.

'극장의 형식'과 '행위의 장소'를 접목시키는 공연문화공간을 위해서는 공연장의 가변성뿐 아니라 부수 공간들을 공간 계획함에 있어 간단한 공연 프로그램을 위한 용도를 고려한 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열린 공간의 활용 사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연장외에 많은 시설을 포함하게 되는 공연문화공간은 공연공간(공연을 위한 공간), 기능공간(작업공간 및 행정사무공간 등), 공공공간(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열린 공간으로는 로비공간을 들 수 있다. 본문의 사례에서도 보여졌듯이 공연문화공간의 로비는 공간의 융통성이 적용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복합 기능적인 문화공간에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존 공연공간들은 로비 공간의 활용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로비 공간의 기존 기능인 이동 및 대기 공간의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간 자체 기능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 계획과 열린 공간에 적합한 공연형태의 개발이 시급하다. 관객들의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연과 장소의 대중개방 등 열린 공연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등의 기획과 로비 공간을 광장의 개념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공간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로비 공간의 공간 활용성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역사적으로 시민의 집적을 위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광장 형태의 부정형적인 물리적 특징을 로비 공간디자인에 적용하여 공간을 연출한다. 이러한 유동성은 로비 공간의 능동적인 활용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공간의 유동성은 공연형태의 확장을 의미한다. 내부 광장(indoor

10) 최 상철, 무대 미술 감상법(서울: 대원사, 1997), pp.9-13.

plaza)으로써 방사형 동선을 제공하며 다른 공간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실행 가능한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복잡한 무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마임공연, 아마추어의 공연 등과 같은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공연문화공간 시설은 공연물이라는 직접적이며 함축적인 방법으로 타문화를 접하게 해주는 문화교류의 교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연문화공간의 확산현상은 문화의 체험, 예술정보의 습득 기회 제공, 문화상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문화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문화공간의 디자인 계획은 본문에서 제안한 ‘극장의 형식’과 ‘행위의 장소’를 접목시키는 공연문화공간의 가변성, 부속 공간의 공간 계획함에 있어 간단한 공연 프로그램을 위한 용도의 고려 등이 요구되어진다. 이는 곧 무대 시설의 현대화와 공간활용 방안과 연결되며 공연문화공간의 설립목적 및 공연물의 종류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고정된 시선을 사용하게 되는 프로시니엄 형태의 무대 공간보다는 공간 활용성이 높은 가변형 무대와 무대 주변공간의 확장 및 첨단 무대전환 시설의 사용이 요구된다. 현대의 공연문화공간은 공연 공간 외에 많은 부수적 공간을 사용하므로 각 공간의 기능과 종류, 대중과의 접촉빈도에 따른 위치관계, 각 공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디자인 계획을 실행한다. 또한 로비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실내광장 역할의 로비공간을 에이트리움 혹은 메자닌 형태의 공간으로 계획함으로써 공간의 개방성과 각 공간간의 방사형 연결구조를 형성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 공연문화공간은 건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필요로 한다. 지역의 문화적, 자연적 환경의 특성을 디자인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연장의 설립목적 확립, 지역의 기존 공연장의 사용용도와 문제점 등에 관한 사전조사작업, 자료조사작업과 기존 데이터의 축적, 데이터의 제공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건축물의 디자인과 공간 연출, 지역민을 위한 자체적 프로그램의 개발, 타 지역과의 문화 교환 프로그램의 실행 등으로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관련된 문화 종목(cultural item)의 계공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공연예술에 관한 논의들을 총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획자, 건축가, 무대미술가, 연출가, 배우, 행정관리들이 한 사회가 어떠한 공연문화공간을 건립하고 유지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공연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뿐 아니라 각 지역 환경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 디자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공연공간과의 차별화,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정부와 지역단체의 적극적

지원 등이 요구되며 공연문화공간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및 디자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연문화공간의 성공적인 활성화는 대중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공연물의 질적 향상, 지역문화 발전, 국가 문화력의 증대 등에 관한 상승효과를 파급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 국가의 자생적이며 독특한 정체성의 단위들인 문화예술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과 문화예술과의 접촉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마련하는 공연문화공간과 문화예술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여석기. II. 1946-1970: Korean Drama, 양혜숙 편. *Korean Performing Arts: Drama, Dance & Music Theatre*. 서울: 집문당, 1997. pp.37-54.
2. 최상철, 무대 미술 감상법, 서울: 대원사, 1997.
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편, 실내디자인잡론. 서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7.
4. Barranger, Milly S. 이재명 역, 연극 이해의 길. 서울: 평민사, 1995.
5. Reid, Francis, 박희태 역, *Designing for the Theatre*, 무대 디자인 입문, 서울: 출판사 예니, 1999.
6. Brown, Catherine R. *Building for the Arts*. New Mexico: WESTAF, 1989.
7. Curtis, William J. R. *Denys Lasdun: Architecture, City, Landscape*. London: Phaidon Press, 1994.
8. Harrison-Pepper, Sally, *Drawing a Circle in the Square*. London: Univ. Press of Mississippi, 1990.
9. Londre, Felicia Hardison. *The History of World Theater: From the English Restoration to the Present*. New York: A Frederick Unger Book, 1991.
10. Mielziner, Jo. *The Shapes of Our Theatre*. New York: Clarkson N. Potter, Inc., 1970.
11. Schechner, Richard. *Environmental Theatre*. New York: Applause, 1994.
12. Steel, James. *Theatre Builders*. London: Academy Editions, 1996
13. Ellis, John., San Francisco Civitas. *Architectural Review*, Vol. 198, No. 1181 (July 1995), pp.73-79.
14. Pollock, Naomi R., Silver Palette, *Architectural Record*, Vol. 182, No. 3 (March 1994), p.62

<접수 : 2000. 10. 26>